G8(서방선진 7개국과 러시아) 정상들은 16일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6자회담 조기 복귀를 촉구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AFP=연합뉴스

G8 정상 "北 6자회담 조속 복귀" 압박

北 미사일 추가 발사 시사에 "우려"

미, 금융조치등대북 추가제재 계속

G8(서방선진 7개국과 러시아) 정상들은 1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환영하고 북한의 6자회담 조기 복귀를 촉구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16일 양자 회담을 갖고 "북핵 6자회담 진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키로 합의했다"고 후 주석이 밝혔다.

G8 정상들은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이틀째 회담에서 북한과 이란 핵문제, 중동 사태 등을 논의한 뒤 '비확산'에 관한 별도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특히 북한이 "추가 발사가 가능하다고 시사"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G8 정상회의에서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채택에 사의를 표시하고 북한의 미사일 문제외에도 핵무기 개발과 일본인 등의 납치 문제가 "포괄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촉구했고 다른 정상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나타냈다고 G8 관리들이 전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 뒤 공동으로 기자들과 만나 "양측은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과 협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기를 희망했다.

후 주석은 부시 대통령과 회담에서 "중·미 관계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며, 양국 관계를 "전략적 차원, 장기적 관점에서 보고 다뤄나가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각자 상대의 관심을 존중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며, 양자관계에서 민감한 문제들을 적절하게 다뤄나갈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고 후 주석은 덧붙였다.

북한의 안보리 결의 거부와 관련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TV와 인터뷰에서 안보리 결의 외에 "금융조치들을 통한 북한의 불법활동 저지, 확산방지구상(PSI) 활동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안보균형에 관해 혼동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강력한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국제사회 "중동戰 막자" 한 목소리

유엔중재단, 양측에 작전 중단·이軍 석방 촉구

EU·G8 정상들도 '무력충돌 종식 4개항' 제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수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양측간 공방을 종결하기 위한 중재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유엔 중재단과 유럽연합(EU) 외교정책 대표가 베이루트에 도착, 사태 해결을 위한 해법 찾기에 착수했고, G8(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들도 무력충돌 사태와 특히 민간인 희생 및 사회기반시설 파괴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양측에 무력충돌 종식을 위한 '급선무' 4개항을 제시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정치고문인 비자이 남비아르가 이끄는 5명의 유엔 중재단은 15일(현지시각) 베이루트에 도착, 임무를 시작했다. 중재단에는 유엔 중동특사인 테레 로에드 라르센도 포함됐다.

남비아르는 헤즈볼라측에 대해 이스라엘 병사들의 석방을 촉구했고,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양측에 민간인 보호와 사회기반시설 파괴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푸아드 사니오라 레바논 총리를 만날 계획이다.

하비에르 솔라나 유럽연합(EU) 외교정책 대표도 이날 베이루트에 도착해 사니오라 총리와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셰이크 하산 나스랄라와 절친한 사이인 나비 베리 레바논 의회 의장을 각각 만나 사태해결을 위해 EU측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모색했다.

솔라나 대표는 17일 브뤼셀로 돌아가 EU 외무장관들에게 베이루트 방문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G8 정상들도 16일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납치된 이스라엘 군인의 무사 석방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로켓포 공격 중단을 헤즈볼라측에 촉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선 ▲군사작전의 중단과 가자지구로부터 조기 철수 ▲체포한 팔레스타인 각료와 의원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그러나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휴전 요구에 반대한다는 미국의 입장엔 변함이 없으며, 이 성명도 휴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反) 이스라엘 무장세력이 이스라엘 병사 석방과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먼저 중단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G8 정상들은 성명에서 "이 지역에서 문제의 근본원인은 포괄적인 중동평화의 결여"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당면 위기는 극단주의 세력이 지역의 안정을 깨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레바논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평화 열망을 좌절시키려는 시도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최진만기자man21@kwangju.co.kr

태풍 '빌리스' 中 3개성 강타…154명 사망

제4호 태풍 빌리스가 중국 동남부 지역을 스쳐 지나가면서 후난(湖南), 푸젠(福建), 광둥(廣東) 등 3개 성에서 최소한 154명이 사망하고 144명이 실종됐다고 중국 언론이 17일 보도했다.

태풍 빌리스가 몰고온 폭우로 이들 3개 성을 지나는 강의 수위가 이미 홍수 위험수위를 넘었고 수천 명의 주민들에 대해 소개령이 내려졌다.

특히 샹(湘)강 지류인 레이수이와 베이(北)강 지류인 우수이(武水)에서 사상 최악의 홍수가 발생,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냈고, 베이징(北京)과 광저우(廣州)를 연결하는 징광(京廣)선 등에서 88개 열차편의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후난성에는 모두 78명이 사망하고 120여 명이 실종됐으며 230만명의 수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43명이 사망하고 24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된 푸젠성에는 모두 300만명의 수재민이 발생했고 재산피해가 30억위안(약 3천5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베이징=연합뉴스

北 "중국도 못 믿겠다" 배신감 토로

"대북 금융제재 중재 약속 안 지켜"…中도 北 독자노선 불만

북한 수뇌부는 최근 평양을 방문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일행에게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강한 불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어려운 것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라는 암초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북한 당국의 불신도 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특히 지난해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도출해낸 '9·19 공동성명' 채택 직후 미국 당국이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BDA) 은행 계좌동결 등 금융제재를 가해오자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북한은 당초 6자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2003년 4월 중국의 중재하에 북한과 미국이 마주앉은 3자회담 이후 그해 8월 6자회담을 받아들였다"며 "당시 중국은 북한에 '6자회담에서 북한이 얻을 상당한 수확'이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동성명 채택 직후 미국이 금융제재를 가해오자 중국에 강력히 항의했고 중국은 미국과 협의를 거쳐 해결하겠다는 메시지를 북측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역시 거듭된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끝내 미사일을 발사하고, 평양에서 펼친 6자회담 복귀 설득 노력도 무시한 북한의 '독자노선'에 대해 나름대로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이런 판단이 결국 안보리 표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분석했다.

/정후식기자 who@

'바다를 지키자'

고이즈미, 대국민메시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17일 '바다의 날'을 맞아 한국과의 독도 해역 분쟁 등을 의식, "바다를 지키자"는 요지의 첫 대국민용 메시지를 발표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메시지에서 "일본은 옛날부터 바다에 의해 지켜져 발전해왔지만 앞으로는 바다를 지키는 일본으로 변혁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해양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쿄=연합뉴스

印尼 또 강진… 쓰나미 발생

진도 7.2 … 자카르타 해변 호텔 덮쳐

17일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서부 자바섬에서 진도 7.2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하와이에 본부를 둔 미국의 태평양쓰나미센터가 밝혔다.

인도네시아 기상청은 당초 지진의 강도를 리히터규모 5.5로 발표했다가 나중에 6.8로 변경했다.

센터는 이번 지진으로 인해 지역적으로 쓰나미(지진해일) 발생 가능성을 예보했으나, 파괴적인 광범위한 쓰나미 발생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자카르타 섬에는 2m 높이 쓰나미가 해변가 휴양지를 덮쳐 호텔을 파괴했고 일부 보트는 가옥 내부까지 들어갔다.

센터는 2분 정도 동안 계속된 강진으로 인해 "해변가의 가옥들이 모두 파괴됐다"고 발표했고 자카르타 시내 고층빌딩 주민들은 "진동을 느낄 정도였다"고 지진 발생 당시 상황을 전했다.

진원지는 서부 자바의 중심도시인 반둥에서 266㎞ 떨어진 인도양으로 추정된다고 인도네시아 기상청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기상청 당국은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인도 공산반군 민간인 학살

인도에서 공산반군의 무자비한 테러로 민간인 25명이 학살되고 21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차티스가르주의 O.P.팔 경찰청장은 "오늘 새벽 수백명의 공산 게릴라들이 단테와다 지구의 한 마을 주민들에게 도끼와 칼을 휘두르면서 최소한 25명을 참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